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황과 특징  
- 2016년, 이산가족 사망자가 생존자를 추월

# 목 차

---

##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황과 특징 - 2016년, 이산가족 사망자가 생존자를 추월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이산가족 상봉 현황 .....	2
3.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특징 .....	5
4. 종합평가 .....	9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동 북 아 연 구 실        : 이 용 화 연 구 위 원 (2072-6222, yhlee@hri.co.kr)

## Executive Summary

### <요 약>

#### ■ 현황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사망자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생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6월 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사망자가 51.3%에 달해 생존율 48.7%를 넘어섰다. 또한 전체 생존자 가운데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생존자의 6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대부분이 초고령자로 생애 상봉 시한이 임박한 것을 알 수 있다.

#### ■ 특징

**(고령층의 급속 증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84.4%를 차지하고 있다(2016년 6월 말 기준). 2004년과 비교할 때, 80대 이상의 초고령층은 2004년 전체의 22.7%에서 2016년 전체의 60.4%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급증)**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간 3,800명에 달하며,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 2,260명에 달한다. 2008~2015년까지 이산가족 상봉률은 2.3%p 증가에 그친 반면, 사망률은 19.2%p로 상봉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생존자 비율 급락)** 2003년 이후 이산가족의 연평균 생존율이 매년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32년경에는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의 생존율이 0.5%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산가족 생존자 비율은 2009년 약 67%에 달했지만 2015년에는 50.2%로 하락했고, 2016년 말에는 46.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자 기대여명 소진)** 현재의 이산가족은 2014년 기준 평균 기대여명으로 볼 때 25년 내에 거의 사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50~60대의 평균 기대여명은 약 25.3년이며, 70대 이상은 7.9년으로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인 2041년경에는 현재 생존 중인 이산가족 모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모든 생존자들이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봉 인원을 매년 7,2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10년간 매년 약 6,8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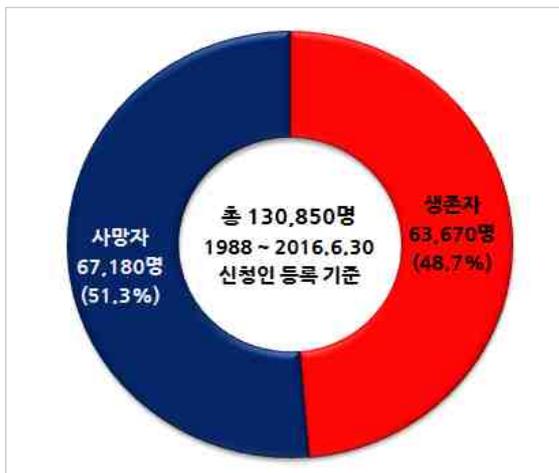
## 1. 개요

### ○ 2016년 들어 이산가족<sup>1)</sup> 사망자 비율이 생존자 비율을 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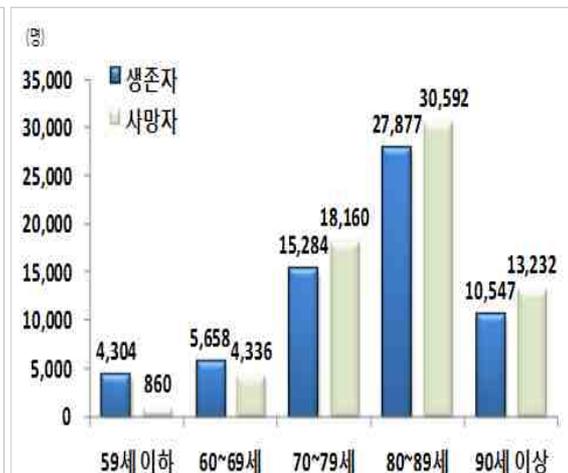
- 2016년 6월 30일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850명 가운데 사망자가 51.3%(6만 7,180명)에 달해 생존자(6만 3,670명, 48.7%)를 넘어섬
  - 2016년 2월 최초로 이산가족 사망자 비율이 생존자 비율을 역전하였음
  - 특히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비율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2016년 2월 50.4%→4월 50.5%→6월 51.3%)이며, 앞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산가족 사망자는 80세 이상 초고령자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
  - 2016년 6월 말 기준 사망자는 80~89세가 3만 592명(4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0~79세(1만 8,160명, 27.0%), 90세 이상(1만 3,232명, 19.7%) 순임
  - 총 6만 3,670명의 생존자 가운데 80~89세가 2만 7,877명(43.8%), 90세 이상이 1만 547명(16.6%)으로 초고령자가 생존자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
- 이산가족 대부분이 초고령자로 생애 상봉 시한이 임박한 것을 알 수 있음

### ○ 이에 본 연구<sup>2)</sup>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추이를 알아보고,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 이산가족 등록자 현황 >



< 연령별 생존자 및 사망자 현황 >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16년 6월 30일 기준.

1)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참조.  
 2)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이산가족 사망자가 생존자를 추월", 『통일경제』 2016.제1호를 수정, 보완함.

## 2. 이산가족 상봉 현황

○ (상봉 추이) 2000년 당국 차원의 상봉을 계기로 점차 활성화 되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모두 큰 폭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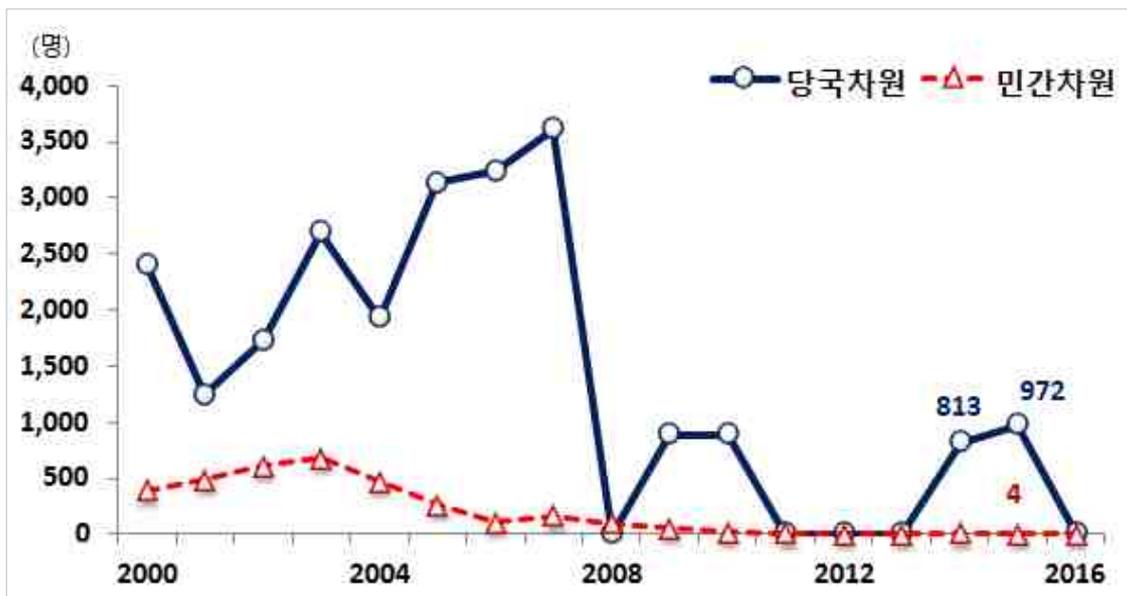
-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15년간 모두 20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2만 3,676명(방북+방남+화상 상봉)의 이산가족이 상봉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활성화되어, 해마다 2~3차례의 상봉 행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숫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
- 특히 2005년 도입된 화상 상봉은 2007년까지 총 3,748명의 상봉 기회를 제공하여, 이산가족 상봉 확대에 크게 기여(2005~2007년까지 화상 상봉은 전체의 37.5%)
- 그러나 최근에는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거부 등으로 상봉자 수가 2009년(888명), 2014년(813명), 2015년(972명), 2016년(0명) 등 연간 800~900명 수준에 불과

-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1990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 2008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

-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민간 상봉은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08년 이후 두 자리 수로 급감, 2015년 4명에서 2016년에는 0명 수준

< 이산가족 상봉 추이(2000~2016년) >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16년은 6월 30일까지임.

주 : 당국 차원의 상봉자는 화상상봉을 포함.

- 특히 민간 차원에서는 제3국이라는 상봉 여건의 어려움으로 서신 교환의 형태로 주로 이뤄지고 있음<sup>3)</sup>
- 당국 차원에서는 상봉 기회가 추첨(고령자, 직계가족 우선)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는 주로 서신 교환을 추진해 옴

< 당국과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비교(2000~2016년) >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16년은 6월 30일까지임.  
 주 : 당국 차원의 상봉건수는 화상상봉을 포함.

- 한편 최근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기회 감소에 따라 제3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비용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
- 특히 2005년 1인당 평균 425만원의 상봉 비용이 2009년에는 589만원으로 164만원(35.5%)이 증가
- 상봉 비용 증가에 따라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

< 민간 차원 이산가족상봉 소요 비용(2005~2009년) >

(단위: 명 / 만원)

연도	인원(건수)	1인당 평균 상봉 비용	평균 주선 사례비
2005	136명 (84)	425	180
2006	117명 (70)	465	184
2007	96명 (50)	418	174
2008	46명 (32)	539	220
2009	25명 (18)	589	257

자료 : 홍정욱 의원실.

주 : 2010년 9월 국회 외교통산통일위원회 보고 내용이며,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자 25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임.

3)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전화·통신·방문·재회·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참조.

- (상봉 현황) 이산가족 상봉은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동시에 이뤄져왔으며, 당국 차원의 교류가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당국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2015년까지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합쳐 총 4,742건 성사되었으며, 2만 3,676명이 상봉함
    - 1985년에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 실시로 총 65 가족, 157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함
    -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면상봉은 총 4,185건(1만 9,928명)이 이뤄졌으며, 화상상봉은 2005년에 처음 시작되어 총 557건(3,748명)이 성사됨
    - 민간차원의 상봉은 1990년부터 시작되어 총 1,751건(3,406명)이 성사
  - 당국 차원에서의 상봉 비중이 민간 차원의 상봉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당국 차원의 상봉은 전체 상봉 건수 기준으로는 73.0%, 인원 기준으로는 87.4%를 차지
    - 이는 민간 차원에서의 상봉이 대부분 소규모로 이뤄지는 데다가, 특히 북한 가족이 제3국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임
    - 특히, 2005년에 정부에 의해 도입된 화상 상봉은 2007년까지 총 3,748명의 이산가족의 상봉 기회를 제공하여, 이산가족 상봉 확대에 크게 기여함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1985~2016년) >

구분	당국 차원		민간 차원	합계
	방북상봉	방남상봉		
대면상봉	3,854건 (17,228명)	331건 (2,700명)	1,751건 (3,406명)	5,936건 (23,334명)
화상상봉	557건 (3,748명)		—	557건 (3,748명)
합계	4,742건 (23,676명)		1,751건 (3,406명)	6,493건 (27,082명)
비율	73.0% (87.4%)		27.0% (1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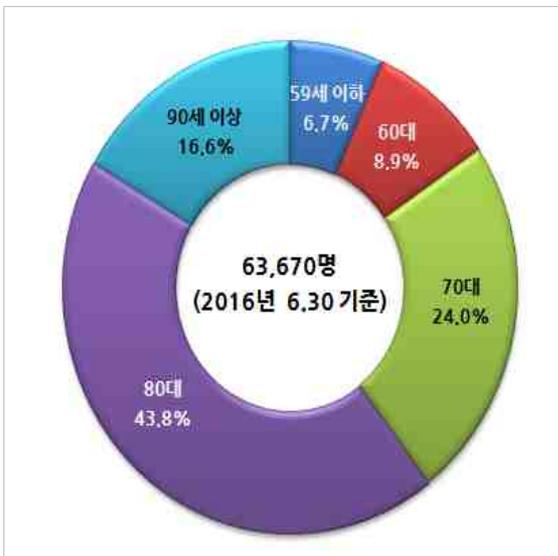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16년은 6월 30일까지임.  
 주 : 비율의 ( )내는 인원 기준임.

### 3.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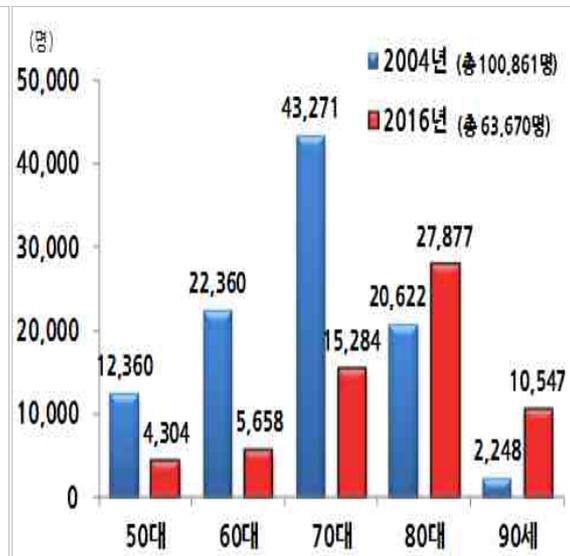
① (고령층 급속 증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연령 분포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2016년 6월 말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84.4%를 차지
  - 연령층별로는 80대(43.8%)와 70대(24.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90세 이상도 16.6%에 달함
  - 60대 이하의 비율은 15.6%(59세 이하 6.7% + 60대 8.9%)에 불과함
- 2004년과 비교할 때, 80대 이상의 초고령층이 2004년 2만 2,870명(전체 22.7%)에서 2016년 6월 기준 3만 8,424명(60.4%)으로 대폭 증가
  - 70대 이하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2004년 7만 7,991명(77.3%)에서 2016년 6월 2만 5,246명(39.6%)로 크게 감소
  - 반면 80대 이상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동기간 2만 2,870명(22.7%)에서 3만 8,424명(60.4%)로 증가
  - 특히 90세 이상의 생존자 비율이 동기간 2,248명(2.2%)에서 1만 547명(16.6%)으로 증가하여 생애 상봉시한이 임박

< 이산가족 생존자의 연령별 분포 >



< 이산가족 생존자의 고령화 추이 >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② (사망자 급증)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간 3,800명에 달하며,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 2,260명에 달함

- 이산가족 사망자의 비율은 증가하나, 상봉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2,26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음
  - 2004년~2015년까지 이산가족 사망자 수가 연간 평균 약 3,800여 명에 달하며, 현재까지의 누적 사망자 비율은 49.8%에 달함
  - 반면에 이산가족 상봉자는 연간 약 1,540여 명에 불과하며, 현재까지의 누적 상봉자 비율은 20.7%에 그침
  - 따라서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매년 약 2,260명 발생
- 특히, 2008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정체된 반면, 사망자 누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08년~2015년까지 이산가족 상봉률은 2.3%p 증가에 불과한 반면, 사망률은 19.2%p 대폭 증가

< 연도별 이산가족 사망자와 상봉 추이(2003~2015년) >

(단위 : 명, %)

연도	사망자 (누계) (A)	생존자 (누계)	합계 (B)	연간 사망자	사망률 (누계)	상봉자		상봉률 (누계)
						연간	누계(C)	
2003	19,488	103,397	122,885	-	15.9	3,368	10,406	8.5
2004	23,058	100,861	123,919	3,570	18.6	2,396	12,802	10.3
2005	26,945	96,268	123,213	3,887	21.9	3,395	16,197	13.1
2006	28,997	94,933	123,930	2,052	23.4	3,341	19,538	15.8
2007	33,300	93,487	126,787	4,303	26.3	3,780	23,318	18.4
2008	38,926	88,417	127,343	5,626	30.6	97	23,415	18.4
2009	42,123	85,905	128,028	3,197	32.9	939	24,354	19.0
2010	43,990	84,133	128,123	1,867	34.3	904	25,258	19.7
2011	49,776	78,892	128,668	5,786	38.7	14	25,272	19.6
2012	53,943	74,836	128,779	4,167	41.9	6	25,278	19.6
2013	57,784	71,480	129,264	3,841	44.7	5	25,283	19.6
2014	61,352	68,264	129,616	3,568	47.3	823	26,106	20.1
2015	65,134	65,674	130,808	3,782	49.8	976	27,082	20.7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계산.

- 주 1) 이산가족의 전체 합계가 변동하는 이유는 미등록자의 등록이 추가로 이뤄지기 때문임.
- 2) 상봉자수는 당국 차원(화상상봉 포함)과 민간 차원의 상봉자를 합한 수치임.
- 3) 사망률(누계) = 연도별 사망자 누계(A) ÷ 합계(B) × 100.
- 4) 상봉률(누계) = 연도별 상봉자 누계(C) ÷ 합계(B) × 100.

③ (생존자 비율 급락) 2015년을 기점으로 생존자 비율이 50% 이하로 하락하고 있으며, 2032년경에는 생존율이 0.5%에 불과할 전망

- 2003년 이후 이산가족의 연평균 생존율이 매년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32년경에는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의 생존율이 0.5%에 불과
  - 현재의 생존율과 상봉률을 기준으로 볼 때 연평균 상봉 비율은 약 1.1%p씩 증가하여 이산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2032년의 누적 상봉률은 42.7%에 불과
  - 따라서, 현재까지의 상봉 규모가 유지될 경우, 57.3%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못한 채 사망할 것으로 예상
-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이산가족 생존자 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09년 약 67%의 생존자 비율이 2015년에는 50.2%로 하락했고, 2016년 말에는 46.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 연평균 사망자가 3,800여명임을 감안할 때, 2015년 상봉 규모 976명씩(당국 차원 972명+ 민간 차원 4명) 매년 상봉할 경우에는, 연평균 약 2,9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하게 됨

< 이산가족 상봉률 및 생존율 추이 >



< 이산가족 상봉률 및 생존율 추정 >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계산.  
 주 : 2016년부터는 추정치임.

④ (고령자 기대여명 소진) 현재의 이산가족은 평균 기대여명으로 보아 25년 내에 거의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

- 현재 이산가족은 모두 50~60대 이상으로, 이들의 기대잔여수명이 25.3년임을 감안하면, 이산가족 대부분은 25년 이내에 사망 예상
  - 통계청의 2014년 생명표에 의하면, 세대별 평균 기대여명은 50대가 29.6년, 60대는 21.0년이며, 70대는 13.0년, 80대는 7.1년, 90대는 3.7년임
  - 따라서 50~60대의 평균 기대여명은 약 25.3년이며, 70대 이상은 7.9년임
- 현재의 모든 생존자들이 향후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봉인원을 매년 7,2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10년간 매년 약 6,800명 이상 상봉해야 함<sup>4)</sup>
  - 50~60대 : 생존자 비율이 15.6%이고 평균 기대여명이 25.3년인 점을 고려하면, 생전에 모두 상봉하기 위해 매년 390명 이상 상봉 필요
  - 70대 이상 : 생존자 비율이 84.4%인 점과 평균 기대여명이 7.9년임을 감안하면, 매년 6,800여 명씩 상봉이 이뤄져야 함
  - 따라서 현재의 상봉 신청자가 모두 생애 한번이라도 이산가족들과 상봉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규모가 최소한 7,200명이 되어야 함

< 평균 기대수명을 초과한 이산가족 현황(2016년 6월 30일 기준) >

구분	평균 기대수명 이하			평균 기대수명 초과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인원(명)	4,304	5,658	15,284	27,877	10,547
비중(%)	6.7	8.9	24.0	43.8	16.6
기대여명(년)	29.6	21.0	13.0	7.1	3.7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주 1) 2014년 통계청 생명표 기준.

2) 세대별 기대여명은 중간치로 함. 예컨대 60대는 65세를 기준.

4) 50~60대는 (생존자 63,670명 × 50~60대 비율 15.6%) / 25.3년 = 390명, 70대 이상은 (생존자 63,670명 × 70대 이상 고령자 비율 84.4%) / 7.9년 = 6,800명임.

#### 4. 종합 평가

-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사망자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생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사망자가 51.3%로 사망률이 생존율을 역전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850명 가운데 사망자가 51.3%(6만 7,180명)에 달해 생존자(6만 3,670명, 48.7%)를 넘어섬(2016년 6월 말 기준)
  - 전체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60.4%를 차지
    - 총 6만 3,670명의 생존자 가운데 80~89세가 2만 7,877명(43.8%), 90세 이상이 1만 547명(16.6%)으로 초고령자가 생존자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
  -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고령층의 급속 증가, 사망자 급증, 생존자 비율 급락, 고령자 기대여명 소진 등의 특징을 보임
    -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대부분이 초고령자로 생애 상봉 시한이 임박한 것을 알 수 있음

####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황과 특징 >

구분	내용
현황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사망률이 생존율을 역전 -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60.4%를 차지
특징	① 고령층 급속 증가 -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84.4% 차지 ② 사망자 급증 - 2008~2015년까지 이산가족 상봉률 2.3%p 증가, 사망률 19.2%p 대폭 증가 ③ 생존자 비율 급락 - 2016년 말 생존자 비율 46.2% 추정, 2032년경 생존자 모두 사망할 가능성 ④ 고령자 기대여명 소진 - 평균 기대여명으로 볼 때, 이산가족 대부분은 25년 이내 거의 사망, 70세 이상은 10년 내 대부분 사망 예상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연구위원 (2072-6222, yhlee@hri.co.kr)

이해정 연구위원 (2072-6226, hjlee@hri.co.kr)